

## 수출가공구 신설로 수출 증대 도모

지난 4월 중국 정부는 베이징(北京), 따론펬(大連) 등 전국 15개 지역에 수출가공구를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 주된 목적은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꾀하기 위함이다. 현재 15개 수출가공구의 도로 건설 등 인프라 확충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바, 따론펬 수출가공구가 9월 중 개설되는 것을 시작으로, 여타 수출가공구도 잇따라 개설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해 11월, 미국과의 쌍무 협상에서 WTO 가입의 전제조건인 하나로 비관세 장벽의 완화 및 관세 인하를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WTO 가입 이후, 적어도 수년간 수출 증대보다는 수입 증대 폭이 커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번 수출가공구 설립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각종 수출 우대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수출 의욕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이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안정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수출가공구 설립 정책의 주된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수출가공구 설립 배경

중국이 수출가공구를 설립하려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수출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수출을 장려하는 게 곧 중국 수출 증대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무역 추이를 보면 꾸준한 상품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97년 이후,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연평균 4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거래 부문의 양호한 실적은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혁·개방 이후 외국인투자가 늘면서 이들의 수출입 비중 또한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여 왔다. 1985년까지만 해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비중은 5% 미만에 불과하였지만 이후 급격한 상승추세를 보여 현재는 거의 절반수준을 육박하고 있다. 과거 국유기업의 수출입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었으나 이들의 수출입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역할을 대신

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WTO 가입으로 시장개방이 더욱 확대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수출가공구 설립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확대를 피하고자 하는 것도 이처럼 중국의 총 수출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 때문이다.

<표> 중국의 수출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 추이

단위 : 억 달러,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수 출	1,501.5 (41.0)	1,827.9 (41.0)	1,837.6 (44.1)	1,947.2 ( .. )	2,263.5 ( .. )	2,583.5 ( .. )
수 입	1,388.3 (54.5)	1,423.7 (54.6)	1,401.7 (54.7)	1,585.1 ( .. )	1,909.2 ( .. )	2,222.8 ( .. )
상품수지	113.2	404.2	435.9	362.1	354.3	360.7

주 : ( )는 각 항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중국통계출판사, 「중국통계연감」, 각년도

국가외환관리국의 국제수지 통계발표(JETRO, 「통상홍보」, 2000.6.15)

EIU, Country Risk Service : China, May 2000.

둘째, 중국이 WTO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대폭적인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약속한 만큼, 당분간 중국의 수입 급증으로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대폭 감소하거나 최악의 경우, 적자로까지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중국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1997년 중반 이후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무사히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엄청난 상품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중국은 일본에 이은 세계2위의 외환보유 대국(1999년 말 현재 1,577억 달러)으로 올라설 수 있었고,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이 중국경제의 안정성, 특히 위엔화의 가치안정을 뒷받침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은 일정 수준의 상품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게 국가 경제정책의 중요 목표로 자리잡고 있다. 1998년 이후 수출 증가율 둔화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 감소가 우려되자 정부는 금리 인하, 부가가치세 환급률 인상, 수출 허가품목 축소 등 다양한 수출증진책을 추진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WTO 가입 이후, 예상되는 수입 증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수출 증대방안이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 수출가공구 설립이 제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가공무역 방식을 이용한 밀수사건 빈발, 가공무역 제품의 내수 전환

등의 문제점이 유발되자 수출가공구 설립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점차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1999년 중국의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은 무려 52.1%에 달했다. 이렇듯 가공무역방식이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부정 행위도 잇달았다. 1999년 한해 동안가공무역 루트를 이용한 대형 밀수 사건이 447건 적발되었으며, 그 규모만 해도 28억 7,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같은 해 총 밀수 사건의 40%, 53%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투자 가공무역업체를 수출가공구 내에 집중시키고, 이 곳을 통해 반출입되는 물품을 24시간 관리함으로써 가공무역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 수출가공구, 주로 연안에 위치

중국 정부가 일차로 수출가공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곳은 모두 15개 지역이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등 중국의 주요 직할시를 포함해 따론펬(大連), 선전(深圳), 광저우(廣州) 등 12개 수출가공구가 동부 연해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나머지 3개는 청두(成都), 우한(無漢), 훈춘(渾春) 등으로 현재 청두와 우한은 현재 중국 정부가 중시하는 내륙개발 정책의 중심 지역이며, 훈춘은 러시아,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개발계획의 핵심지역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15개 수출가공구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시기를 앞당기고, 인프라 건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기존의 경제기술개발구 혹은 보세구 등 투자 우대지역 내에 수출가공구를 설립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따라서 수출가공구의 설립 논의가 1년 남짓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따론펬 수출가공구는 오는 9월 개설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진행중이며, 여타 수출가공구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어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15개 예정 지역 모두가 개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수출가공구 입주 기업에 최상의 우대조치 부여

정부의 수출가공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보면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增值稅)를 전액 환급해주는 한편, 기업소득세도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부여되는 가장 유리한 수준인 15%로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가공공장 설립을 위한 각종 설비의 수입시 이에 대한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가공무역용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던 수입 보증금도 면제

된다. 한마디로 수출가공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현재 중국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최상의 우대조치를 모두 부여한다는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통관절차의 간소화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무역거래에 있어 수출입 통관의 애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수출가공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전산망을 통해 24시간 통관체제를 갖추어 놓고, 즉각적인 화물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즉, 종래에는 기업소재지 세관과 수출입 지역의 세관(수출지 세관, 수입지 세관)의 두 곳에서 모두 통관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이 때문에 통관 절차도 복잡하고, 소요시간도 길어지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수출가공구 기업들은 가공구 내에 있는 세관에서만 통관절차를 밟고 수출입 지역 세관에서는 별도의 검사절차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출가공구를 통한 수출입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화물 발송인(수출자)은 수출화물 리스트를 작성하여 가공구 세관에 제출한다. ② 가공구 세관은 수출 화물에 대해 세관검사 절차를 밟은 뒤, 수출화물 리스트를 수출지 세관에 전산망을 통해 송부한다. ③ 화물이 수출지 세관에 도착하면 화물 운수인은 이를 수출지 세관에 통보한다. ④ 수출지 세관은 특별한 검사절차 없이 그대로 통관시킨 뒤, 적하명세표를 작성하고, 이를 가공구 세관에 송부한다. 수출가공구 내의 기업이 원부자재 등을 수입할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수출가공구 입주가 외국인투자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우선 수출가공구 입주기업은 이 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기본적으로 모두 수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출판로가 막혔을 경우, 생산된 제품의 재고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내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에는 오히려 통관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우려도 있다.

둘째, 既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가공구에서 부여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을 수출가공구 내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수출가공구 위치가 모두 기존의 개발구 혹은 공업구 내에 있기는 하나 어쨌든 별도의 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개발구내에 있더라도 기존 기업들의 공장을 수출가공구 내로 이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입주 대상기업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수출가공구를 설립하는 주된 목적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입주대상 기업이 제조업과 이들이 생산할 제품을 운반할 운수업만 허용되며, 무역업을 위주로 하는 종합상사 등은 일단 배제된다.

## 우리나라 對중국 진출기업의 검토사항

현재 많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중국의 수출가공구 설립 방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다른 곳에 있는 기업들에 비해 상당한 우대조치를 활용함으로써 그만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WTO 가입 이후, 중국에 진출한 많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중국계기업들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가공구가 제시하는 우대조치들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메리트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기업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既 진출 기업들이 이곳을 활용해야 할 경우, 기존의 공장을 이곳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공장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출가공구로 이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일 기존 공장이 수출가공구가 있는 개발구, 공업구 혹은 보세구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그리 크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 모집 등을 비롯하여 제반 사항이 처음에 공장을 설립할 때와 같은 어려움을 다시 겪을 수도 있겠다.

둘째, 既 진출 기업이나 혹은 신규 투자기업이나를 불문하고, 중국 진출의 기본 목적이 중국의 내수시장 개척에 있다면 굳이 수출가공구의 입주를 고집할 필요가 없겠다. 중국 투자기업 중에는 완전 내수 혹은 완전 수출만 고집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수출과 내수 비중 결정에 있어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전략과 수출 대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 가운데 대개 수출보다는 중국인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내수시장의 엄청난 잠재력을 겨냥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예컨대 중국 진출기업이 수출과 내수 비중을 30 : 70 정도로 삼고 있다면 굳이 수출가공구에 입주하여 내수용 제품의 통관에 불편을 겪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중국 수출가공구 설립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될 지에 대한 의문이다. 현재 중국은 WTO 가입을 앞두고 내외국기업의 동등 대우라는 명목 하에, 기존의 경제특구와 같은 외국인투자 우대지역의 폐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 같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 우대조치는 국유기업의 상대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국유기업의 부실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정책 추진의 최대 난제인 국유기업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제 확산, M&A 허용, 외국인투

자기업의 우대조치 철폐 논의 등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가공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새롭게 부여되는 우대정책이 오랜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처럼 중국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수출가공구 설립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각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전반적이고도 면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수출가공구에의 입주 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全善俊】